

한옥서 도란도란...손님과 함께 작품도 구상

음식, 그 따뜻한 위로

광주 신세계갤러리 3월 29일까지 '음식남녀'展



⑤지산동 '미소리 게스트하우스&갤러리'



광주 지산동 농장다리 인근에 위치한 '미소리'는 게스트하우스와 갤러리를 겸한 공간이다. /최현배기자 choi@

서양화가 김유미씨 직접 인테리어

60년된 한옥 3동 리모델링 문 열어

아트상품 제작·공예 전시 등 계획



광주시 동구 지산동 농장다리 인근에 한옥 게스트 하우스가 문을 열었다. '미소리 게스트하우스&갤러리'다. 작은 대문을 열고 들어서면 반기는 건 금속공예가 김화영씨의 작품이 걸려 있는, 잠시 쉬어가기 좋은 소박한 마루다.

좁은 통로를 지나면 청사초롱이 내걸린 마당이 보인다. 오래된 동백나무가 인상적이다. 양쪽으로 개성 있는 컨셉의 한옥 온돌방이 자리하고 있다. 본채 마루에는 시원 박태후 선생이 쓴 '미소리(彌昭理)' 현판도 보인다. '미소리'는 '널리 밝음으로 깨우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150평 규모의 한옥은 지난 1958년 지어졌고, 5년 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공간이었다.

넓은 한옥에 숨결을 불어넣은 건 '미소리' 주인장 서양화가 김유미(54) 작가다.

"처음에는 작업실로 쓰려고 한옥을 구입했어요. 문화전당 등 시내가 가까운 데다 한적하고 조용한 곳이라 마음에 들었어요. 푸른길 공원이 인접해 있는 점도 좋습니다. 어릴 적 이 곳에 살았던 추억도 있고요.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면서 하고 싶은 것은 모두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요즘엔 느끼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업실을 혼자 쓰기는 아까워 활용 방안을 고민해 보게 됐어요."

김 작가는 리모델링 과정과 인테리어 하나하나를 직접 챙겼다. 본채, 안채, 독채로 구성된 '미소리'는 8개의 방이 있다. 각 방은 빨주노초파남보 무지개 일곱가지 빛깔과 하얀색을 컨셉으로 했다. 강렬한 색감이 돋보이는 작업을 해온 김씨와 딱 어울린다.

화가가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는 아무래도 남다른 듯하다. '미소리'에서 특별한 공간은 흰색을 주조로 꾸민 갤러리다.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되는 이곳에는 현재 김유미씨의 작품이 걸려 있다. 앞으로 동료 작가들

의 작품도 꾸준히 전시할 계획이다.

김 작가는 손님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릴레이 그림' 프로젝트를 구상중이다. 미소리에 묵고 가는 손님들이 매일 매일 작품을 그려 완성해 가는 프로그램이다. 미소리와 게스트들이 '함께' 만드는 공동 작업이다. 마지막에는 전시회를 개최하고 작품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소소한 이야기를 담아 책으로도 펴낼 계획이다. 또 한옥과 어울리는 전통 공예 작가를 발굴해 작은 전시회를 열고 공예 작품을 함께 만들어보는 기획도 구상중이다. 또 아트상품도 제작할 계획이며 한복 입기, 다도 체험, 김치 만들기 체험도 진행한다.

이곳 저곳 구경하다 흥미로운 공간을 발견했다. 갤러리 환경에 위치한 책장이 눈에 띈다. 150여권 가량 꽂힌 책은 모두 '여행책'이다.

매니저를 맡고 있는 김송희씨는 여행가 겸 구성작가다. 지금까지 35개국을 여행한 그녀는 MBN 등에서 구성작가로 활동했다.

"외국 여행을 갈 땐 꼭 게스트하우스에서 묵고는 했어요. 미소리를 휴식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재미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이 곳을 찾는 사람들끼리 서로 어울리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여행 컨설팅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웃음)."

이제 문을 연 지 20여년 남짓이라 쟁여야 할 것, 하고 싶은 것도 많다. 봄이 되면 푸른길 투어, 전당길 투어, 대인시장 야시장 투어도 계획중이다. 또 미소리 인근 가볼 만한 곳과 맛집 등을 소개한 지도도 만들 생각이다.

3월에는 '미소리' 1분 거리에 50평 규모의 2관을 오픈한다. 각 방마다 욕실을 갖추고 있으며 두 곳 모두 간단한 아침 식사도 제공된다.

"서울에 갈 때면 가끔 북촌 한옥마을에 머물고는 했는데 참 좋더라고요. 무언가 정화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의 집을 찾는 이들도 편하게 집 자체를 즐기고 싶으면 좋겠어요. 머물다 가는 손님들이 애정을 갖고 공간 하나하나를 만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니 참 고맙습니다."

김 작가는 새롭게 시작하는 일이 마냥 설레고 즐겁다며 행복해 했다. www.misoriguesthouse.com. 문의 062-222-375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김진욱 작 '비빔밥 이야기'

봄이 기다려지는 이유 중 하나는 햇나물 등 입맛을 돋구는 각종 먹거리다.

광주 신세계갤러리가 봄을 맞아 25일부터 3월29일까지 '음식남녀'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남녀 작가 16명이 참여해 먹는 행위와 음식에 대한 생각들을 진지하거나 유쾌하게 풀어놓는다. 서양화, 한국화, 설치, 사진 등 음식을 소재로한 작품 40여점을 선보인다.

김진욱 작가는 한국 대표음식 비빔밥을 확대해서 극사실주의 기법으로 그린 작품 '비빔밥 이야기'를 출품했다. 콩나물, 오이, 고추장 등 사진과 분간이 안되는 세밀한 표현이 입맛을 다시게 한다.



조장은 작 '십년만 젊어도'

변윤희 작가는 유머스럽지만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작품을 선보인다. '허전함을 허기로 착각한 어느날'은 TV 앞에서 과자를 손에 든채 잠든 사람을 그렸다. 주위로 날부러진 과자봉지, 컵라면 등은 현대인이 소외감을 극복하기 위해 사용하는 치유제다.

배수민 작가는 전설적 미국 팝아트 작가 앤디 워홀의 '캠벨 스프'를 오마주했

다. 토마토 스프 강통을 피라미드 모양으로 탐처럼 쌓은 설치작품을 선보인다.

그밖에 외인잔에 담긴 와인을 사진처럼 생생하게 표현한 '선택받은 사람'(유용상), 침대 위 밥상에 짜장면을 등장시키며 고독한 삶을 표현한 'Still life'(임남진) 등을 만날 수 있다. 문의 062-360-1271.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박물관 '박물관 숲 이야기' 프로그램 운영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조현종)이 '박물관 숲 이야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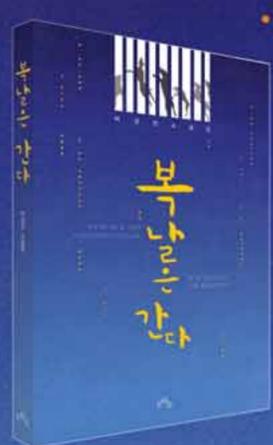
이 프로그램은 가족을 대상으로 3월 12일부터 10월8일까지 매월 둘째주 토요일 오후 2시30분부터 약 90분간 박물관 정원과 인근 숲에서 진행된다. 맞춤형 숲 해설과 오감으로 관찰하기, 놀이, 만들기, 전시관람 등으로 구성된다.

3월은 '연두빛 마당 매향담장'을 주제로 열린다. '꼭꼭 숨어라 꽃말' '식물의 향기 찾고 나만의 봄 향기 만들기' 등 봄

식물과 관련 체험마당을 마련했다.

그 밖에 4월 '박물관 숲에 깃들여', 5월 '오감으로 만나는 자연', 6월 '나무랑 인연 만들기' 등 매월 다양한 주제로 펼쳐진다.

산림문화연구소 정숙희, 정영아 강사가 진행하며 회당 40명 내외로 운영될 계획이다. 신청 접수는 26일부터 국립광주박물관 홈페이지(gwangju.museum.go.kr)에서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문의 062-570-7021. /김용희기자 kimyh@



박성천 소설

삶의 불모성에 천착한 따뜻한 언어의 미학

박성천 작가의 소설은 삶의 이면에 어둡고 깊게 드리워진, 아픔과 슬픔을 예리하게 들여다본다. 현실에 짓눌린 등장인물들의 삶은 결코 선블리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가혹하고도 무참하다. 일견 평화로워 보이는 일상 너머에 무겁게 자리한 삶은 고해(苦海)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삶의 고통을 극복해나가는 인물들을 바라보는 작가의 시선은 따뜻하면서도 냉엄하다. 작가는 조금의 과장이나 에두름 없이 날것 그대로를 응시한다. 박성천은 자신만의 소설작법을 독심 있게 밀고나가면서, 독창적이고도 완성도 높은 형상화하는 그만의 미학을 성취해나가는 데서 빛이 난다.

- 문순태 소설가

박성천 소설의 미덕은 삶의 비무함과 냉혹함을 감싸 안는 작가의 따뜻한 시선과 인간적인 태도에 있다. 인물들의 처지는 하나같이 외롭고 궁핍하고 궁지에 몰려 있는데, 그러한 상황을 주목하고 서사적으로 이끌어오던 작가의 특성이 은근하고 순정적이다. 부한 경쟁 체제 속에 낙오된 무력한 도시민의 지난한 현실을 예리하면서도 온기 가득한 삶의 언어로 빚어내고 있어 희귀한 가치를 발휘하고 있다.

- 함정임 소설가·동아대 한국어문학과 교수

박성천 저 | 224쪽 | 컬러 | 값 12,000원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48(희동) 2층 전화 062-651-6968 팩스 062-651-9690 이메일 simmian21@harmail.net, munhackle@harmail.net